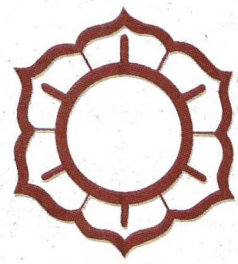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5년
6월 1일
수요일
제68호

이 달의 종조법설
신심은 환희한데서 생김으로 소외보다 참여로 좌
절보다 의욕으로 명령주의보다는 대화로 권위주
의보다는 이해로 자리보다 이타로 미움보다 환희
심으로 이것이 생의 가치 기준이다. 참으로 즐거
움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불사와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총지종 연회 단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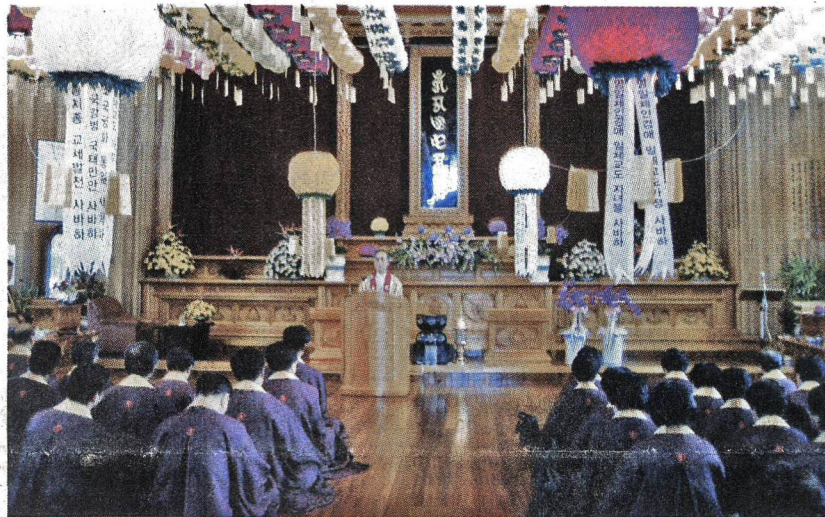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바라볼수록 기쁨에 차니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부처님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 비춰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을 편안하고 조용히 대담하셨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나투심을 기리기 위한 봉축행사가 지난 5월 15일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

원에서 예년과 비교하여 많은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다채롭게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불이법문을 되새겨 우리 모두가 마음속의 차별을 걷어내고,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불이정신으로

서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말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마음마저 없애어 이 땅에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져 극락정토가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지난 5월 8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서울지역의 모든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봉

축박회를 봉행하였다.
연등축제에서 김병조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어울림마당에서는 각 사찰별 연회단의 장기자랑 공연과 각 그룹별 공연을 통해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하였고, 제2부 연등행진은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모든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각자의 소원을 발원지에 적어 기원하는 행사로 각 종단별로 준비한 장엄등과 연등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오색찬란하게

총지불교대학 개강 스승과 신도들의 교육제도 마련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총지불교대학개강식에서 효강 종령에게서 교상과 사상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정지선교무)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5월 19일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 스승과 각 사원별 간부보살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지불교대학 개강식을 봉행하여 6월 1일부터 부산, 대구, 경남, 경북지역 스승은 부산 정각사에서, 서울, 경인, 충청, 전라지역 스승은 서울 총지사에서 1년에 6개월씩 매주 목요일에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총지불교대학 개강은 그동안 스승들에게 불교에 대한 지식과 교양, 불경 독경 등 불교교리와 교양, 한문 등을 교육하여 종단의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교양과 불교교리의 습득을 통해 불교의 정법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청정한 수행종단을 건설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 날 개강식에서 효강 종령예하는 “우리가 밀교와 진정한 수행자가 되려면 교상과 사상이 함께 갖춰져야 제대로 수행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상이라는 것은 삼밀관행 육바라밀 실천 서원정진 염송정진이고 교상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많이 공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사상과 교상이 어느 한쪽만 기울어져도 새가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하듯이 우리 밀교에서는 교상과 사상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총지종은 시대의 엄청난 변화에 따라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종단이 되어야 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법력을 갖추고 교상과 사상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여기 계신 승지자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 사업에 몸을 받치기로 맹세하

물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고 온 세상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원하였다.
부산에서는 5월 5일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지역 불자들이 동참하여 연등축제를 열고 부산역에서 서면까지 거리행진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불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총지종은 서울에서 경인지역 스승들과 30여명의 연회단, 40여명의 풍물패, 20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하여 준제자관인을 형상화한 장엄등을 필두로 태극기 만다라의 종대팔엄원을 현상화한 팔엄원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여 시민들의 감탄을 받았으며, 부산에서는 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들의 풍물패를 필두로 하여 스승들과 300여명의 교도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한마당을 연출함으로써 총지종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신 분으로 밀교 법으로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구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요,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수행면에서 승지자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철주야로 용맹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우승 총리원장은 “최근 불교계에서 포교가 활성화되고 교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일부사찰의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이 정구교육과정을 통해 신도와 승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은 올바른 교리공부와 수행실수를 통해 불교의 사상과 교상을 확립하고 확고한 신앙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종교관을 정립하게 되었고, 승지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을 통해 수행력을 고양시켜 신도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은 한 조직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단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교계에서도 조계종을 비롯하여 타 종단들은 승지자에 대한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승지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총지불교대학 개강을 통해 앞으로 우리 종단도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죽비소리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나니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라
세간의 이치는 덧없는 것이니
미혹하여 어둠속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공부할 땐 마음의 등불을 켜고
스스로 단련하여 지혜를 구하라
번뇌를 여의고 더럽히지 말고
춧불을 잡고 도의 자리 관찰하라
『법구비유경, 중에서』

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불공법

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이 5월 28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입재되었다.
하반기 49일 불공은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49일 동안 봉행되며, 특히 49일 불공 기간에는 조상들의 영상을 천도하는 천도불공을 통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생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고, 자신의 안명과 더불어 자녀들의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불공을 드린다.
하반기 49일 불공에 즈음하여 우승 총리원장은 “불교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참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부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중생들에게 사로잡힌 번뇌와 집착, 망상, 아집을 제

거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고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속에 편안함과 환희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동안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참회하고, 남편과 자식,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웃는 마음과 실천의 나쁜 기억을 버리는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공법을 바로 세워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하반기 49일 불공

중생은 각자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해탈을 이루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모두가 부처가 되도록 하반기 49일불공동안 용맹정진합시다.

- ◆ 일시 : 총기 34년 5월 28일 ~ 총기 34년 7월 15일
- ◆ 장소 : 총지종 전 사원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27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다라사자(多羅使者), 봉교사자(奉敎使者)**

지난 호에서 관음원의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과 수길상 변관음보살(水吉祥變觀音菩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 호에서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다라사자(多羅使者), 봉교사자(奉敎使者)에 대해서 살펴본다.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백처존보살은 범어(梵語)로 「하얀 곳에 머무는 자(白處尊)」, 「백의(白衣)를 착용한 자(者)」라는 뜻이다. 그 때문에 백처존(白處尊) 또는 백의관음(白衣觀音)이라고도 한역(漢譯)된다. 『대일경(大日經)』에서는 다라보살(多羅菩薩)의 오른쪽에 배열(配列)하고 있다. 『대일경소(大日經疏)』에서는 '백(白)'이란 부처의 경계로부터 생기는 보리심(菩提心)을 가리킨다. 이 보리심(菩提心)이라는 백처(白處)에 머물면서 제불(諸佛)을 낳는 것이라면, 이 본존(本尊)은 관음(觀音)의 모친(母親), 연화부(蓮華部)의 주인(主人)이라고 설(說)한다. 이 본존(本尊)을 성숙(星宿)의 주인(主人)으로 하여 식재(息災)등의 수법(修法)이 행하여진다.

『대일경소』에서는, 다라보살(多羅菩薩)의 왼쪽 뒤에 위치한다고 설(說)해지고 있지만,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는 오른쪽 앞에 그려져 있다.

이외에 『대일경(大日經)』, 『대일경소(大日經疏)』에는 설(說)해져 있지 않은 본존(本尊)이므로, 오른쪽·왼쪽 어느 쪽에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의례(儀軌)에 근거(根據)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본존(本尊)의 범명(梵名)인 '다라' 체타(체타)는 '다라보살(多羅菩薩)의 하인(下人)'이라는 의미(意味)이다.

이 본존(本尊)의 진언(眞言)은 『대일경(大日經)』보통진언장품(普通眞言藏品)에 설(說)해지고 있는 「제봉교사(諸奉敎者)의 진언(眞言)」이다. 그리고 이 진언(眞言)은 이하(以下) 연화부원(蓮華部院)의 모든 사자(使者)에게 공통(共通)되는 진언(眞言)이기도 하다.

삼매야형은 미부연화(未敷蓮華)이다.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양손에 미부연화(未敷蓮華)를 들고 연대(蓮臺) 위에 무릎 꿇고 안자아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眞言)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지 시리 캄 보람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歸依)합니다. 지자(智)여! 길상(吉祥)인 자(者)여! 합 브람 사바하!'이다.



백처존보살



다라사자



봉교사자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리구금강(離垢金剛), 보화금강(普化金剛)이다. 때를 여의게 하는 보살이다. 삼매야형(三昧耶形)은 개부연화(開敷蓮華)이다.

존형(尊形)은 백황색(白黃色)으로 백의(白衣)를 착용하고 있다. 왼손에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오른손은 여원(與願)을 맺고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다. 인상(印相)은 백처존인(白處尊印)을 취하고 있다.

백처존인은 허심합장(虛心合掌)을 하여, 두 개의 무명지(無名指)를 손안으로 구부려 놓고 두 엄지를 나란히 구부려 무명지(無名指)에 대고 있는 결인이다. 진언(眞言)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다라카타비사하삼밤바베이 함드마마리네이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歸依)합니다. 여래(如來)의 경계(境界)로부터 생긴 것이여! 적연화(赤蓮華)로 된 목걸이를 한 자여! 사바하'이다.

다라사자(多羅使者)

다라사자는 『제설불동기(諸說不同記)』나 『석산칠집(石山七集)』

봉교사자(奉敎使者)

이 본존(本尊)은 일본의 경우 동사만다라(東寺曼荼羅)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다카오(高麗)만다라(曼荼羅)에는 그려져 있는데, 그 존용(尊容)은 『석산칠집(石山七集)』등을 참조하여 그려졌다.

이 본존(本尊)이 동사만다라(東寺曼荼羅)에서는 연화부(蓮華部)의 사자(使者)가 열 다섯 명인 반면, 관음원만다라(觀音院曼荼羅)에서는 열 여섯 명으로 그려져 있다.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연화(蓮華)를 들고, 오른손은 넓적다리를 누르고, 연대(蓮臺)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眞言)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지 시리 캄 보람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歸依)합니다. 지자(智)여! 길상(吉祥)인 자(者)여! 합 브람 사바하!'이다.

(자료정리 : 통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법경정사 (사무국장 겸 연구원)

무상(無常)의 진리

▶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무상(無常·덧없음, 영원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한 덧없음을 실제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자유롭게 되는 통찰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기에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보라고 재촉한다. 그러한 무상함이 없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알아 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자주 우리를 귀찮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곧잘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아울러 자신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재빠르게 남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완벽히 객관적일 수 없는 자신의 의견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잊어 버리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의견들이 아집이라는 망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만을 보여 줄 뿐이다. 그러나 그 마음도 영원하지는 않다. 자기가 좋으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함이라 말하기에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다.

**집착을 없앨때 마음의
번뇌(탐욕, 화냄, 어리석음)들이 소멸**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세상의 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정의와 희망을 위하여도 무상함이 필요하다.

꽃이 시든다고 하여 내가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꽃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된다.

무상은 아주 좋은 정보이다. 무상함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무상함으로써 변화를 위한 모든 문들이 열려 있게 된다. 무상함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 이러한 마음 구석에는 우리의 집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집착으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그것들을 그냥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집착하지 않음을 확실히 이해할 때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니게 된다면 여전히 그런 생각이 집착하는 것이다. 집착을 없앨때 마음의 번뇌(탐욕, 화냄, 어리석음)들이 소멸될 수 있다. 매 순간 집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무상함을 알고 극사에 순응하면 자연스럽게 집착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진언연송을 통해 늘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자.

(법경/ 사무국장/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음남’을 정법계진언이라 한다. 정법계진언이란 현교의 정구업진언과 같은 의미와 성격의 진언이라 할 수 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깨끗하도록 하는 진언이 정구업진언이듯이 정법계진언 또한 중생의 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삼라만상의 일체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러므로 정법계진언은 소우주인 나를 포함하여 일체 모든 법계를 다 청정하게 한다.

행자 자신과 일체 삼라만상이 청정하여야 실지연송삼매에 이를 수 있다. 정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심미묘한 진언연송은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진언행자는 종단의 법요의례인 ‘금강합장’에서부터 번뇌소진의 **〈람〉**자관을 거쳐 ‘음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야말로 진언행자의 수승한 수행자세와 몸과 입과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진정한

연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람〉자가 일체번뇌를 없애는 진언종자이므로 ‘음남’은 곧 일체번뇌의 소멸과 법계청정의 진언종자가 되는 것이기에 정법계진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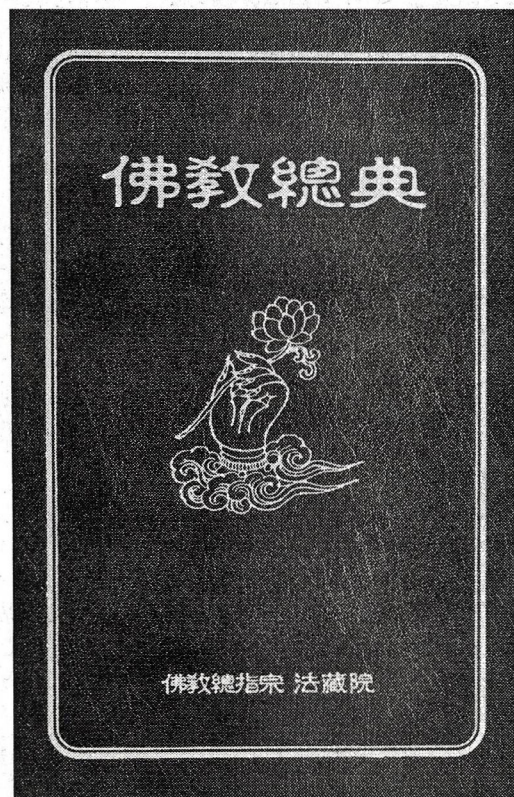
이 진언을 연송할 때는 왼손은 ‘금강권’을 결하고, 오른손으로는 108염주로 ‘음남’을 3편이나 7편 또는 21편을 연송한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의하면 “이 정법계 ‘람’자를 만약 생각하거나 지송하면 능히 삼업을 모두 청정케 하고 일체죄업의 장애를 다 소멸시키고 또한 능히 일체 모든 일을 성취시킨다. 머무는 곳마다 모두 청정케 하고, 의복이 더러우면 의복을 청정하게 해준다. 만약 물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했다면 이는 진정한 청정이 아니다. 만약 이 법계심으로 ‘람’자를 연송하여 청정하게 했다면, 이를 필경청정이라 한다. 법안에 영단 한 알이 들어 있어 철을 금으로 만들고 같다. 이것은 진언의 한 글자가 더러운 악의 오염을 청정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정법계진언 〈음남〉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주요내용

교법(敎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풍경소리

마음속의 대왕

조주화상이 어느 날 거실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 때, 화상의 한 시자가 『스님! 대왕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왕인지를, 시자는 즉시 그 내방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시자의 전갈을 들은 조주화상은 『대왕 만복』

큰 소리로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아닙니다. 스님! 대왕께서는 지금 저기 올라오시는 중이시고 아직 이곳에 당도하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조주화상은 『모르는 소리라. 지금 또 한 분의 대왕이 오시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할 따름이다.』하였다.

시자는 오직 형식상의 대왕만 대접할 줄 알았지, 늘 존경하여 모시는 마음 속의 대왕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공경의 마음과 친절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모시는 마음 속에 늘 함없이 담겨있는 것이다.

개달아 소(牛)가 되라

어떤 중이 설봉화상을 만나서 물었다

『저기 있는 저 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일흔일곱이다.』

설봉화상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설봉화상 자신의 나이였다. 이에 그 중은 재치 있게 거듭 물었다.

『노스님은 어이하여 소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까?』

『한 마리의 소가 된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이야

기인가? 나는 무엇이 되든 중생을 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되겠다』라고 설봉화상이 대답하였다.

사람이 정상에 올랐거나 남들보다 두드러진 무엇을 갖추었다고 하여 안락만을 구하고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 애써 쌓은 공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개달음을 얻은 연후에 권리를 내세워 남으로부터 존경을 스스로 원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자와 같다.

기반사라조

기반사라조(평과 비슷한 자고새의 일종)라는 새에게 두 친한 벗이 있었는데, 하나는 코끼리였고 또 하나는 원숭이었다.

『우리들 중 누구의 나이가 위인지 모르겠다』 코끼리가 말했다.

『나는 옛날 이 나무가 내 눈 밑에 있는 것을 보았소. 지금 이 나무는 이렇게 높이 자랐소. 이것으로 추측할 때 내가 바로 위임이 틀림없소.』 원숭이는 말했다.

『나는 전에 땅에 엎드려 내 손으로 이 나무의 꼭대기를 잡아당겼소. 이를 추측한대 내 나이가 더 위일 것이오, 이번에는 새가 말하였다.

『나는 필발라나무 숲속에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소. 그때 그 씨가 내 똥과 함께 떨어져서 이 나무가 났소. 이것으로 생각건대 내가 더 연장일 것이오. 이제되었건 연장자는 연하자를 보살피고 연하자는 연장자를 공경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만이오.』

즉시 코끼리는 등에 원숭이를 태우고, 새는 그 원숭이 위에 앉아 춤을 추며 즐겁게 거닐었다

이달의 명상

더불어 하나인 세상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나와 남을 나누게 되고,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게 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조그만 이권을 갖고도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하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분분투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질시하거나, 증상모라, 인신공격 따위의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다른 생명, 존재의 가치를 부정되어도 좋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꾸만 '나'라는 것을 고집하게 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보십시오. 서로 굽고 다르고 길어도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른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아름다

움이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연꽃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연꽃 특유의 상징과 향기, 의미하는 바가 다른 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 꽃이 연꽃밖에 없다면 결코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 많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이만큼 자랐고, 앞으로 많은 존재들에게 빛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러면서도 나에게 대한 무지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 없는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불안정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잘못된 벽을 허물고 더불어 하나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결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고, 굳게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조용히 내밀면 경계심으로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모두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적을 만들지 않으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스스로도 귀해지고, 다름이 없는 더불어 하나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41화~

글:그림/정수일

대 성사님 비록 양상군자 일지라도 어쨌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하지 않나요?

그.. 그러게요.

아직 팔정도중 정어(正語), 정정진(正精進), 정정(正定), 세 가지가 설명이 되질 않았군요.

정어란 글자 그대로 정건과 정사유에 의해 지켜지는 "바른말"이며 거짓말이나 샛된말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정진이란 바른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 양상군자의 남의 집을 털기 위한 노력은 바른 노력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어떻게 하면 한 건 큰걸 털까?

이집 저집 열심히 많이 털어 부자가 되자.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정정"이란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연사람 처럼 살면 안되겠죠?

뭐가 어째서 그래? 나처럼 사는 것도 좋지 않나?

국적까지 포기하고 나라를 버리는 일부고위층들도 많은데 나정도쯤이야 뭐... 히히히히!

아아... 인생은 정말 괴로워.

허허허!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내 그대를 위하여 한마디 해 드리리다.

"인생이란 불안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지요.

음... 딱입술 각자님 대단하십니다. ... 아무튼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명 하다보니 팔정도얘기가 길어졌군요.

지금껏 말씀드린 "팔정도"를 잘 지켜 나가신다면 훌륭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무지역무득"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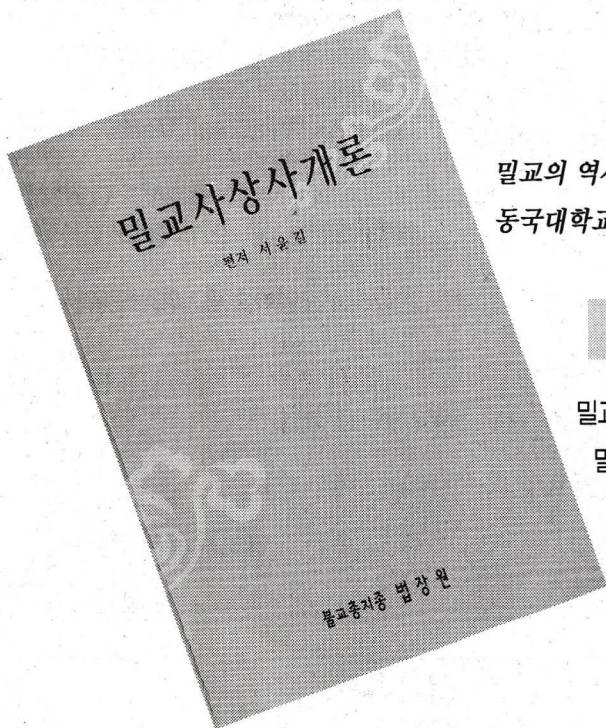
학! 학! 그..그런

쿨..

감사합니다

정수일출판: http://home.paran.com/octagonp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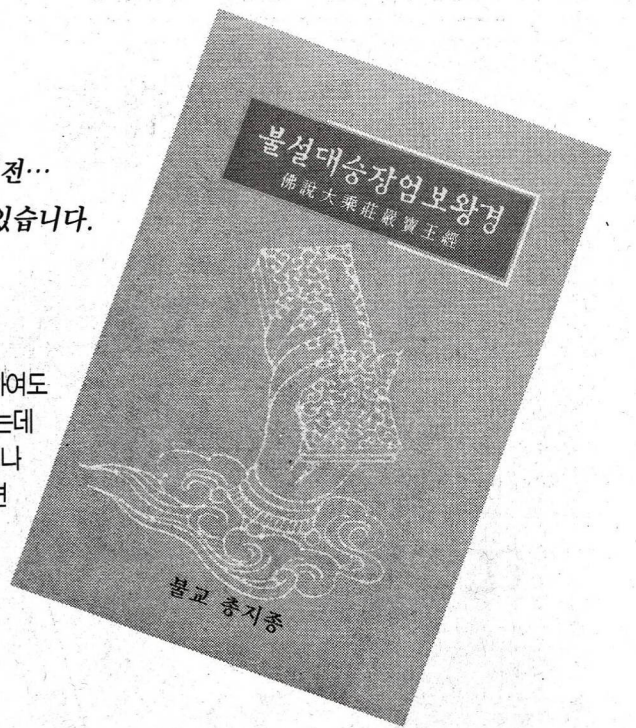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육마니만메홍)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중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기획특집 법항사, 흥국사 헌공불사 이모저모

호남지역 밀법요람, 일체유정의 복덕과 죄업중생의 해탈처



법항사 사원연혁 광주 법항사는 총기 12(1983)년 광주시 금동 186-1 번지의 독립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설단 불사를 거행하고 원덕서원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졌, 그 후로 총기 13(1984)년 광주시 서구 구동의 단층건물을 매입하여 법항사로 개칭하고, 초대 주교로는 현재 법항사 주교이신 법수원 전수님께서 임명되어 지금까지 계속 법항사에서 법을 설하고 계심. 법항사 신축 건물은 총기 30(2001)년 12월 24일(창교절)에 공사 착공하여 총기 32(2003)년 1월 16일 준공한 지상2층 지하 1층, 연면적 484평의 건축로, 종단에서 최초로 한식기와 양식으로 신축하였다.

흥국사 사원연혁 흥국사는 총기 2(1973)년 전주시내의 한복집을 임대하여 선교부로 개설하고, 총기 4(1975)년 훈정서 원당으로 세워짐. 총기 9(1980)년 전북 전주시 고사동의 1층건물 한동을 매입하여 흥국사라 개칭하였음. 신축건물은 총기 31(2002)년 원신구 호지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2월 1일 착공하고, 총기 32(2003)년 6월18일 완공하였으며 전통 한옥식으로 연면적 320평의 지상 2층 건축물로 신축하였다.

종령 헌공사



효강 종령

불심 가득한 도시 광주와 전주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엄한 법계 도량을 부처님 전에 헌공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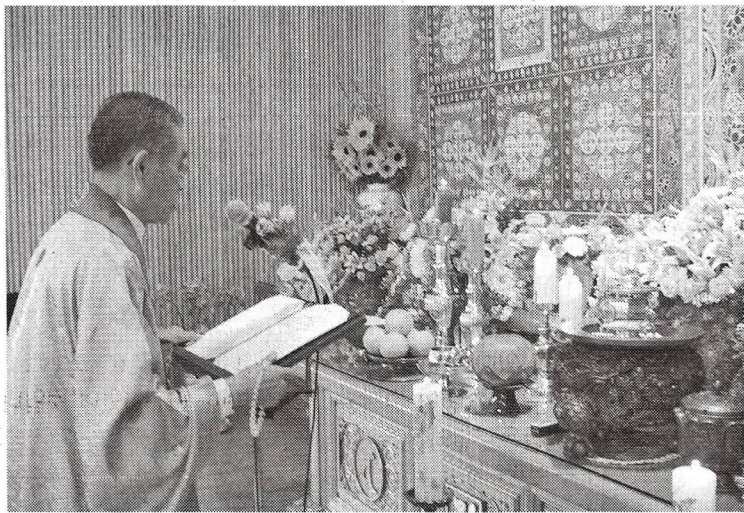
이 전당(殿堂)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원력같은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무진서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당은 자재일만하신 법신 불의 도량으로, 금강법계공의 도량으로,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전당으로, 그리고, 일체 유정들의 복덕의 원천(源泉)으로, 또한, 고해중생들의 안식처로, 죄업중생의 수도 해탈처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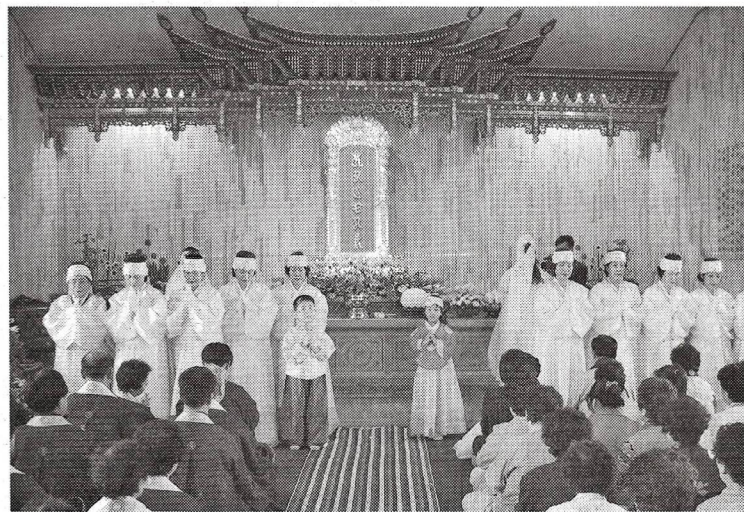
우주에 상주하여 영원불변하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오늘,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다 함께 불사를 올리고 서원하오니, 이 법항사와 흥국사가 미래제가 다 하도록 불법의 인연처가 되게 하옵고, 우비고뇌(憂悲苦惱)의 수렁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는 무진등(無盡燈)이 되고, 서원성취의 마니보궁(摩尼寶宮)이 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되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지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원하오며, 간소한 헌공사로서 불전에 헌공하오니 영감토록 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자비지혜가 함께 하옵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효강 종령 헌공사 봉독



정각사 만다라합창단의 육법공양



헌공불사 본존제막



법신불의 밀법으로 중생구제와 교화활성화 발원

통리원장 인사말

법항사



우승 통리원장

계절의 여왕 오월의 실록은 푸르름을 더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등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거룩한 정기가 어

느새 아름다운 진언행자들이 수행하는 정통밀교 밀법도량 법항사까지 당도하여 오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증명하는 가운데 거룩한 헌공불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법항사에서 수행하셨던 법수원 전수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은 허스름하고 초라한 도량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러한 용맹정진과 아름다운 부처님 도량에 대한 크나큰 발원이 있었기에 이 웅장하고 정당한 수행도량을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처님 도량이 있기까지 고생하셨던 법항사 주교이신 법수원 전수님과 법항사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 국토건설 신재홍 이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구경에 보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속에서도 증오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속에서도 질병 앓지 않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들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쾌락된 환경에 몰들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은 남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물질적, 육체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옥할 줄 모르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미움의 감정, 증오와 시기, 질투의 마음자리가 자리잡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법항사도 예전에 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곳일지라도 수행하시는 스승님과 보살님들의 마음은 크고 동글고 아름다우므로 가득하였기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공불사를 마련하여 주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법항사 법수원 주교님, 교도분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까지 참석하여 주신 종단 스승님과 보살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지비광명의 가지력이 충만하여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의 날이 영속되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흥국사

산들 산들 불어오는 실바람에 플라타너스의 줄기들이 흥겨운 춤의 향연을 펼치고, 처마 끝에 매달린 조그만 종소리가 무릇 무명(無明)속에 사로잡힌 중생들의 번뇌와 악업의 끈을 끊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흥국사 헌공불사를 봉행하게 되어 기쁨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흥국사는 초라한 도량이었습디다. 비록 허스름한 도량일지라도 밀공정 주교님, 흥국사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은 진언행자로서 밀법을 포교하기 위해 용맹정진하셨습니다. 이러한 용맹정진이 있었기에 고통받은 대중들을 불법으로 호령하듯 높은 곳에서 웅장한 재래로 자리잡은 광명의 빛이 가득한 부처님 도량을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흥국사는 법항사와 더불어 호남지역에 밀법을 포교하여 이 지역에서 밀법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잡아합경을 보면 "물질은 무상한가, 아닌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아닌가?' '괴로운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대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없습니다'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

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집착에 의해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별심으로 인해 서로간에 불화와 불평,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모든 세상은 평등한 부처님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모시듯 남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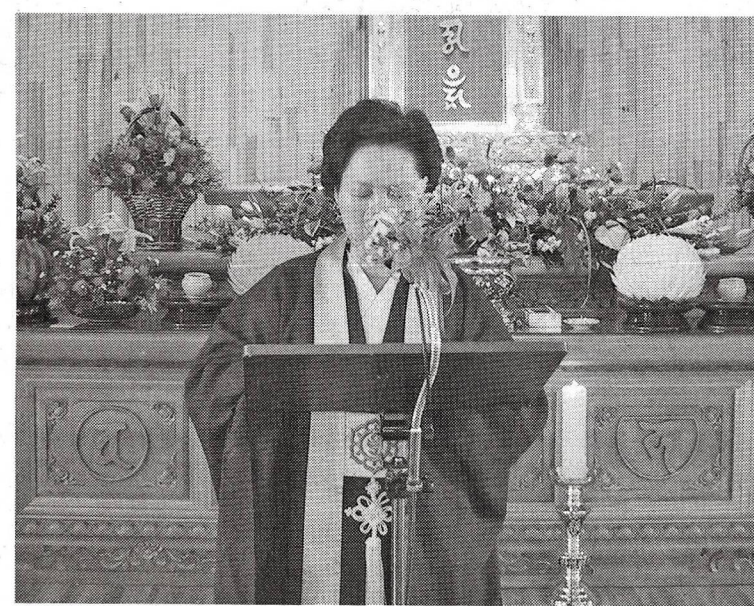
오늘 이 헌공불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해탈하셨기에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해탈을 이루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공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고생하신 흥국사 밀공정 주교님과 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법항사 헌공불사에 이어 이곳 흥국사 헌공불사까지 참석하여 주신 종단 스승님과 보살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통하신 가지력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해탈을 이루시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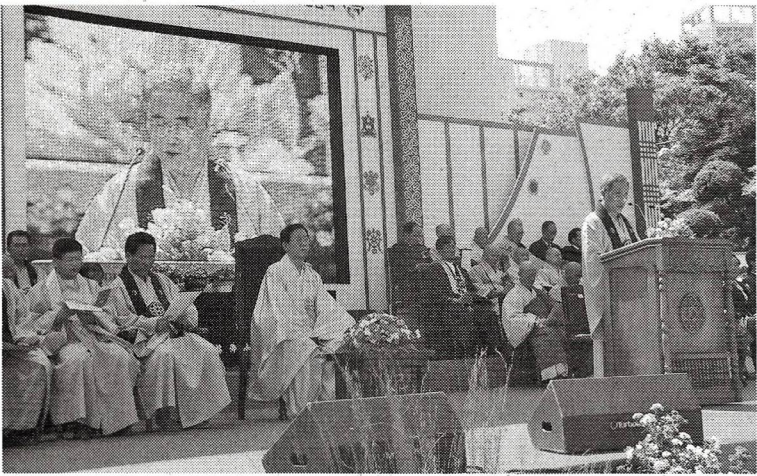
법항사 법수원 주교 인사말



흥국사 밀공정주교 인사말

교계소식

인재양성, 신도교육, 문화복지구현 진각종 제27대 회정총리원장 취임식



진각종 제 27대 회정 총리원장 취임식이 5월 20일 총인원 140인 특설무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하여 불교계 대표단과 열린우리당 문화상 당의장, 한나라당 강경협 원내대표,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 등 2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회정 총리원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상생, 문화복지구현의 기초에 장의적 사고와 추진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행정기관의 자율적 기획과 추진을 독려함과 더불어 포교, 교육, 복지, 3대 정책에서 문화의 영역을 포함한 4대 정책사업으로 선언하고, 신도교육을 통한 교회조직의 보조적 기반형성, 교법의 교학적 체계를 완성하여 세계와 한국 밀교를 연결하는 교류수도, 스스로 실천하는 능동적인 중무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고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진각종은 교육과 복지사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며 "새로 총리원장에 취임하는 회정 정사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조불연과의 협력과 연대에 적극 노력해온 회정 대정사님이 총리원장으로 선출되어 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한다"는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진각종의 내일을 보여주는 영상물 상영과 육법공양, 취임선서, 화환증정, 축사, 축연 등의 의식과 2부 남상일 박에의 인사말을 듣고, 태평소 시나위와 사물, 오느름관현악단의 관현악 연주, 이상중 선생의 대피리 협주등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정토회 에코붓다, '2005빈그릇운동 선포식'

"100만명 참여로 생명운동 전환점 마련"

지난해 24만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정토회의 '빈그릇운동'이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다시 시작된다.

정토회 에코붓다(이사장 법륜)는 5월 20일 서울 명동에서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약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에코붓다 이사장 법륜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 광명교 환경부 장관, 방송인 김미화·배종옥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빈그릇운동이 전국민의 생활문화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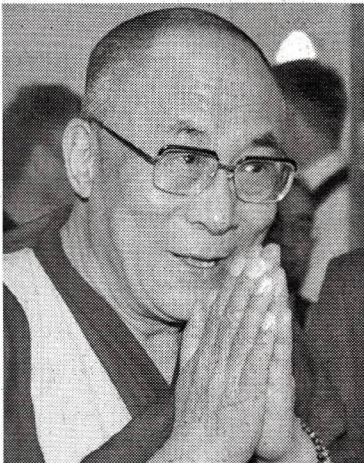
으로 번져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되도록 하자"고 다짐하였다.

특히 이번 운동에는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어서 범종교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륜 스님은 "향후 빈그릇운동이 환경운동과 기아문제해결을 위한 지구촌 생명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에코붓다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빈그릇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만해대상 평화부문수상에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방한 관심



계의 관심을 환기시킨 공로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42년 출생해 가톨릭대학교 로마 율리아노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이탈리아 그레고리오대학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함세웅 신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산파역을 맡으면서 인권회복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지관 스님은 11대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최치원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고금의 금석문을 발굴 수집 정리, 연구해 한국금석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은 8월 12일 오전 11시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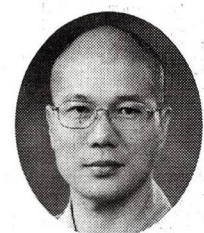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조계종 법장 총무원장)가 제정하고 백담사 만해마을이 주관하는 제9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이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9회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달라이라마를, 문화 부문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인인 소잉카(전 노벨상 수상자) 씨를, 실천 부문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학술부문에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평화 부문 수상자인 달라이라마는 국제사회의 갈등, 인권문제, 국제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선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공적으로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34년 나이지리아 출신인 소잉카는 '검목으로부터의 시' 등 다수의 시집과 '혼들의 계절' 등 희곡편(善巧方便) 연구소'를 개설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태고종 법현스님, 열린선원 개원 주말법회, 참선 및 개방형운영, 불교아카데미



한국 불교 태고종 사회 부장 법현 스님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열린선원'의 개원법회가 6월 5일 오후 2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태고종 총무원 인근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열린선원은 인터넷 카페 '열린질'(http://cafe.daum.net/buruna21)을 모체로 삼고 있다. 사찰이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것 모두 흔치 않은 일이다.

열린선원이 일반 사찰과 차이점은 음력 위주의 재일(齋日)법회를 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법회는 연다는 것이다. 주5일제라는 시대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다. 또 참선지도를 포교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공동운영 도량으로 운영되며, 교양대학과정인 '열린불교아카데미'를 개설, 불가지초과정을 지도한다.

스님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법문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회, 학생회, 대학생회, 청년회 등 각종 법회를 개설하겠다고 밝히고 나아가 각계 전문가 그룹을 연구원으로 초빙, '21세기 선교방법(善巧方便) 연구소'를 개설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함경 이야기

부처님의 성도<3>



황형정사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무명이 멀하면 행이 멀하고, 행이 멀하면 식이 멀하고, 식이 멀하면 명색이 멀하고, 명색이 멀하면 육체가 멀하고, 육체가 멀하면 축이 멀하고, 축이 멀하면 수가 멀하고, 수가 멀하면 애가 멀하고, 애가 멀하면 취가 멀하고, 취가 멀하면 유가 멀하고, 유가 멀하면 생이 멀하고, 생이 멀하면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가 멀하다.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은 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명을 없앤다면 모든 괴로움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에 의하여 눈을 떴고 지가 생겼고 해가 생겨 깨달음을 얻고 광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므로 무명을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까? 십이연기의 앞과 끝만 보자면 무명을 제거하면 생노병사의 괴로움이 생기니 무명을 제거하면 생노병사의 괴로움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단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스스로 감흥에 겨워 이런 계승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인과 그것을 소멸하는 이치를 완전히 파악하고 감흥에 겨워서 이렇게 계승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요히 사유하는 성자에게 진리는 드러났다. 태양이 허공에서 내리비추듯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쳐부수었다."

더할 나위 없는 위없는 바른 지혜에 의해서 누구도 깨닫지 못한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에 생노병사의 온갖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자리에서 또 상당 기간 깨달은 내용을 읊 미하면서 앉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경전에서는 그 이후에도 그 근처에서 이리 저리 옮겨 앉아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좌선하며 사유하신 시간은 경전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것은 3주, 길게는 7주간까지 앉아 계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반복하며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7일을 더 보낸 부처님께서는 삼매에서 깨어나 일종의 무화과나무인 아자팔라 나무 아래로 가서 다시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아자팔라 나무 아래로 가서 삼매에 잠겨 있는데 그 때가 대중에 그들을 주는 나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이 맑고 그들이 드리워진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마하박가)라는 물자에 보면 이 때에 처음으로 한 교만한 바라문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바라문이 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 때의 바라문이라는 것은 참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계급으로서의 바라문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를 나타내는 뜻으로 바라문이라고 부른 예는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아마 그 바라문 계급의 사람은 자기가 바라문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당시 같은 사람이 바라문이 된다는 아나나 하는 투로 물었다고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바라문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으며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청정하며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로서의 바라문은 이래야 된다고 짧게는 타이르셨던 모양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만 묘사해 놓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아마 부처님께서 삼매에 잠겨 계시는 때 어떤 교만한 바라문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싶어 특 단정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평범한 대답을 하시자 이 바라문은 흥미를 잃고 그냥 지나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다른 사람과 얘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간단한 이 말씀 속에는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자는 첫째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만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중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중의 역사를 만듭니다.

동해중의 모교사랑

총립 동해중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행되어 오랜만에 동해중 동문인으로서 긍지를 되새기고, 동문간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였다.

의강 동해중학교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번 모교는 평생동안 모교로써 여러 동문 선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동해중인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때 동해중학교의 발전은 가능하며, 앞으로 동문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모교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호 총동창회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같은 동문인으로서 동일체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동문과 동해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지종 총립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는 지난 5월 22일 본교 운동장에서 의강 동해중학교 이사장, 박수현 동해중학교 교장, 김수호 총동창회장(1회), 정관호 동래구의원(1회, 동해중학교운영위원장), 이진복 동래구청장(3회), 이갑동 울산동구청장(4회), 백종현 부산광역시의원(7회), 문춘원 변호사(14회), 송한식 동아대 교수(3회), 노봉호 동명정보대 교수(12회) 등 동문 100여명과 가족들, 본교 교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고 모교사랑을 확인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몸풀이 체조, 축구 시험, 자녀 달리기 및 동문 부인 달리기, 기수별 씨름 대회, 기수별 단체 줄넘기 대회, 족구 시험, 이어달리기, 치어리더 공연, 장기자랑 및 노래 경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

총지종 정각사 공부방개원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

총지종 부산 정각사(주교 범성)는 6월 1일 정각사에서 부산경남교구장, 정각사 주교, 동래구청장, 명륜동 동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공부방개원식을 가진다.

정각사 공부방은 정부의 청소년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불우한 학생과 맞닿아 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정서적, 문화적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14명의 학생들이 정각사에 마련

된 공부방을 활용하고 있으며, 차후 지역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각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어가, 한글, 한문, 서예, 밀교교리 등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정각사 교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문화를 통한 불법포교를 강화하고 있다.

나도 한마디

지난 5월 8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등축제가 서울시의 모던 문화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화려한 조명등과 연등을 앞세우며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거리에서 열렸다. 그러나 올 연등축제는 작년과 비교하여 운동장 좌석에는 빈 공간이 많았고 소속사원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우왕좌왕하였으며 마치 외톨이 신세처럼 초라하게 빈 공간을 차지해야만 했다.

연등축제는 이제 몇 년을 이어오면서 명실상부한 서울시의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불자 및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시민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찰별로 마치 교세의 위력을 자랑하는 경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수십 억씩 들여가며 웅장하고 화려한 조명등을 앞세우며 기세등등하게 거리를 횡보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초라한 비닐연등을 들고 행진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연등축제가 불자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

일반시민과 함께한 연등축제가 되었으면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다니는 사찰의 교세에 대한 열악함을 느끼게 되어 불심을 약하게 만들고 소속사원이 지방에 있거나 불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소속사원이 없어 어느 사원에 소속되어 연등행진을 해야 될지 혼란만 가중되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

물론 연등축제가 봉축위원회의 노력과 정진으로 시민의 문화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일반시민들이 소외된 문화축제는 그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연등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찰별 교세를 자랑하는 경연장이 아니라 불자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요,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 즉 하루의 행사를 위해 소비하는 수십억의 돈을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고 부처님의 참 진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포교사업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나'와 '너'는 차별이 없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동체대비의 정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김필선/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밀교강좌

밀교의 만다라

'만다라(mandala)'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만다라(曼荼羅)' 혹은 '만다라(曼陀羅)' 등으로 쓴다. 이 말은 본래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로서 '만다(manda)'와 '라(la)'로 된 합성어다.

'만다라'는 '중심' 또는 '본질'의 뜻 이외에도 '신성한 것', '최고의 것'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또한 '라(la)'는 '가지고 있는 것', '장소' 등의 뜻으로 이 둘이 결합되어 만다라는 '본질적인 것을 가진 것', '최고의 것을 가진 것' 등의 뜻이 된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말이 베다의 찬가 자체를 뜻하기도 했으며, '군대', '동료' 등의 뜻으로 쓰였고, '신의 세계', 혹은 '단(壇)'을 가리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이 불교에 받아들여지면서 '원륜(圓輪)'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밀교에서는 '원만구족(圓滿具足)'이라고 번역하고, 또는 '정각을 성취한 경지'라고도 한다. 『대일경』 「구원품」에서는 '본질을 가진 것', '깨달음을 가진 것' 혹은 '깨달음을 가진 장소', '거룩한 장소', '정각을 성취한 경지'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 뒤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원구족(圓圓具足)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선무의삼장은 『대일경소』 4권에서 이 말을 해석하여 '만다라란 집합이라고 하니, 여래의 진실 공덕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방세계의 미진수의 차별을 가진 지인(智印)이나 원원(圓輪)이 모여서 대일의 심왕을 돕고,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보문에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만다라라고 한다.'고 했다.

결국 밀교의 만다라는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경지로써, 그의 무량한 복덕이 모여 있어서 일체중생을 제도할 곳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관함으로써 부처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만다라라고 한다.

이러한 만다라에는 비로자나부처님 즉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수많은 부처와 보살, 또는 명왕, 천신 등이 모두 집합된 한 장소가 상징적 그림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종교적으로나 미술적으로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세계로서 나타내게 된다.

밀교의 모든 것이 만다라로서 상징화된 것은 밀교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한 마디로 그 뜻을 표현하기 어렵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만다라라는 용어가 우주의 대조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주와 인간, 절대와 상대라는 이 현실 세계의 뒤에 있는 깊은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되고, 그것을 추상화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무의식의 창조능력을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이것을 다양한 도형으로서 구체화하기도 하나, 밀교의 만다라는 전통적으로 존상의 집합체로서 성불의 방편을 보여 주고 있다.

만다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인 지혜와 중생제도의 자비를 하나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형상이나 기타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세계에서 보면 그러한 세계를 상징한 어떤 것에 의해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만날 수 있다. 만다라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훌륭한 방편이며, 세속적인 입장에서 성스러운 세계, 곧 부처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므로 수많은 만다라가 있게 되고 또한 여러 각도에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저 부처님

인간의 마음이 깊이 감취진 보리심에 의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되는 대비행의 모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곧 대일여래의 이 법신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대비심을 태장(태장)에 비유한 것이니, 우리의 생명 그대로 종교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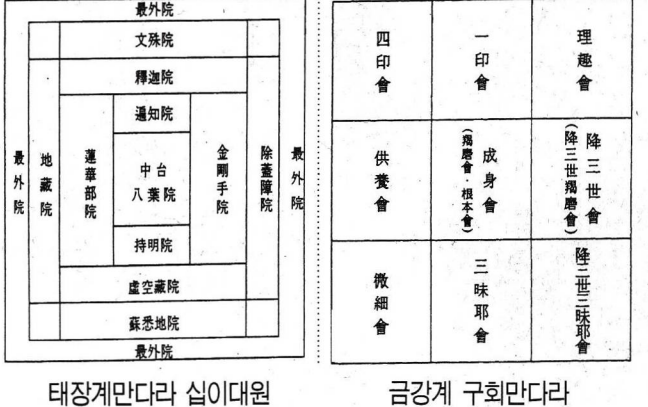
태장계의 태장이라는 말에는 함장(含藏)과 섭지(攝持)의 두 뜻이 있어, 마치 모태가 아기를 보호하고 기르는 것과 같이, 일체중생에게는 본래부터 여래의 평등한 자비의 본성을 함장하고, 또한 섭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해서 태장계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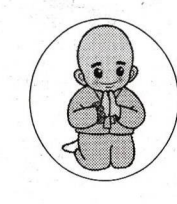
이러한 태장계만다라는 밀교의 근본 경전인 『대일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의 대비심을 그림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대일경』은 7세기 전반경에 서남 인도에서 성립된 것이며, 중대팔엽원, 변지원, 지명원, 금강수원, 관음원, 석가원, 문수원, 제개잡원, 지장원, 허공장원, 소실지원, 최의원 등 십이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414존상이 모셔져 있다.

금강계만다라의 금강(金剛)이란 깨달음의 지혜의 몸이니, 금강석과 같이 견고한 것을 본체로 한다는 뜻이다. 금강계만다라에는 종(從)과 횡(橫)의 3종의 테두리로 구성된 아홉 개의 공간이 있다. 중앙에 있는 것은 성신화라고 하여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4불이 핵을 이루며 37존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대일여래를 제외한 제존은 금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밀교 특유의 보살이다. 곧 태장계만다라에서 나타나지는 제존이 모두 밀교의 성격을 띠고 독자적인 존재로 변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계만다라는 태장계만다라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묘사된 것으로서 교대로 구회(九會)만다라라고도 불리진다. 이것은 아홉으로 등분된 복합 만다라이며, 제존이 만다라 위에서 회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구회란 갈마회, 삼마야회, 미세회, 공양회,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항삼세갈마회, 항삼세삼매야회 등이다. 금강계만다라에는 1,461존이 모셔져 있고 무수한 불보살과 제존들이 나오는데 중앙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대일여래의 별력을 상징하고 있다. 행자는 이 만다라를 통하여 그 제존들이 덕성을 체현하여 마침내 대일여래와의 일체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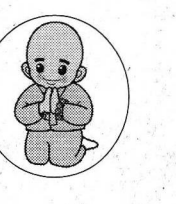
(자료출처: 밀교사상사개론)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이는 기업 인정 받는 기업
 책임을 이는 기업 봉사를 이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상 호 존 중 기 술 혁 신 고 객 만 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축제



'나'와 '너'가 하나되는 부처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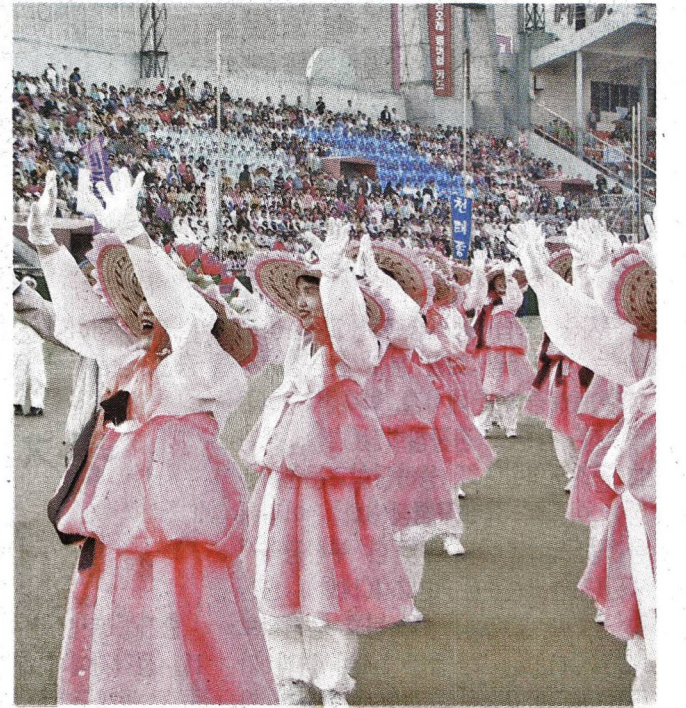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 동대문 야구장과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총지종의 연희단과 교도들이 장엄하고 화려하게 제작한 준제결인의 장엄등과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형상화한 팔엽원등을 들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였다.



부산지역 총지종 교도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화려한 궁중복과 아름답게 단장한 총지종 연희단에 매혹당한 불자들



하늘 높이 두팔벌려 환호하는 군중과 함께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과 각종단 대표들의 봉축발원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 불교 총지종!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아름다운 연꽃으로 단장한 밀점모자



총지종 스승님들이 중대팔엽원을 형상화한 연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준제결인을 형상화한 장엄등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흥겨운 한마당에 춤이 명실당실



서울 경인지역 연희단의 흥겨운 춤에 맞춰 교도들이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풍물패가 연등축제에서 공연하고 있다.